

## 새 천년의 희망을 향해 달려가자



정장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대망의 2000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천년의 문턱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1999년은 우리 경제가 IMF 체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국내 인터넷 산업은 이용자가 600만명에 이르는 등 급속히 확대·발전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호황과 벤처기업의 성공신화, 대기업들의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 진출·강화 등 굵직한 뉴스들은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올해에도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되어 21세기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계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도 21세기 건강한 정보사회의 실현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차세대 컴퓨터 운영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리눅스의 이용 활성화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촉진을 위해 리눅스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물의 안전한 이용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제도」를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정보통신포럼」을 통하여 올해에도 정부의 정책 수립에



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업계의 수익 안정성 확보는 물론,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문화 정착을 적극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실있는 각종 정보통신산업통계자료 및 부문 비교통계 등을 국내외 각급 기관과 사업계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정책 및 경영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다음 순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구성원 모두의 결집된 힘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협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